

□ 정부시책 □

「전문인력 지원봉사단」 발족

산업자원부는 지난 5월 20일 섬유센터 회의실에서 개최된 주요 업종단체별 상근책임자 회의에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퇴직 기술자 및 경영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전문인력 지원봉사단」을 각 업종 단체별로 발족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의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많은 고급 기술인력 및 전문 경영인력을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및 경영혁신 지원을 위한 귀중한 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수출증대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98 하반기부터 출범 예정인 전문인력 지원 봉사단은 각 업종 분야별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및 경영자문을 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각 업종단체별로 참여를 희망하는 퇴직 기술자 및 전문 경영인력으로 인력 풀(pool)을 구성하여 지원봉사단을 결성하게 된다.

전문인력 지원봉사단을 출범시킬 업종단체는 기계공업진흥회, 전자산업진흥회, 섬유산업연합회, 전기공업진흥회, 조선공업협회, 자동차공업협회, 철강협회, 반도체산업협회, 석유화학공업협회 등 모두 9개 단체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업종별 수출동향, 기

업구조조정 추진현황, 실업문제 등 주요현안 사항이 폭넓게 논의되었는데, 산업자원부 차관은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출증대 및 외국인 투자 유치에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강조하고, 각 업종별 단체가 수출 촉진단 파견, 전시회 개최 등을 통해 업계의 수출증대 노력 지원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해외 조달시장 진출 등 업계의 해외마케팅 활동을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산업자원부 장관의 친서발송, 외국인사 초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지원할 방침임을 밝혔다.

또한, 업종단체를 중심으로 투자 유치단 파견,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확대 지원 등 외국인 투자 유치활동에도 적극 앞장서 주도록 당부하였다.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서는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관련기업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중심적 역할을 당부하고,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제기되는 법적, 제도적 애로 또는 문제점이 있으면 정부에 건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실업대책과 관련해서는, 기업구조조정 과정에

서 발생하는 고용조정은 불가피하지만 고통분담 차원에서 기업들도 최선의 고용유지(job keeping) 노력을 기울여 주도록 하고, 고용조

정이 불가피한 경우는 법적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여 노조측과 충분한 대화를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노넷 서비스 고도화

산업자원부는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되는 '종합기업서비스정보망(Inno-NET)'의 정보를 대폭 확충하기 위해 기존 창업·자금·기술 등 9개 분야 이외에 물류·에너지를 추가하며 외국인 공장설립안내, 투자유망외국기업정보 등 분야별 특화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노넷에 기존 창업·자금·기술 등 9개 분야 이외 물류·에너지를 추가하며 이노넷에 연계된 기업지원 공공기관을 현재의 127개 기관에서 153개 기관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외자유치, 중소기업 경영활동, 수출지원, 창업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공장 설립안내, 對韓투자유망 외국기업정보, 중소기업 및 상품홍보 정보, 신기술사업화정보 등 분야별로 특화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제공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키워드 방식의 통합검색 시스템을 개발키로 했다.

이와함께 사이버 창업광장을 개설, 예비창업자가 창업과정을 게임형태로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창업시뮬레이션게임, 창업자와 투자자를 연결시켜 주는 아이템페어(Item Fair), 소자본 창업을 지원하는 소호(SOHO) 창업방 등을 구축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같은 계획이 원활히 추진되면 인터넷을 통한 중소기업 제품, 신기술 등의 전자상거래를 촉진시켜 중소기업에 새로운 시장 개척의 기회를 제공하고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8월 1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 이노넷은 산자부·중기청·무협·무공·업종별단체 등 127개 기업지원 공공기관을 인터넷으로 연결, 창업·자금·무역 및 투자 등 9개 분야에 대해 기업지원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접수된 기업의 애로나 민원을 1-2일내에 처리하고 있다.

산자부는 작년 8월부터 이노넷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연인원 5만5천명(하루 200명)이 접속·이용했으며 이용자는 대부분 기업체 근무자나 최근들어 컨설턴트 등 전문직 종사자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유망선진기술기업, 輸出선도기업 육성

유망선진기술기업에 대한 지원이 크게강화된다. 특히 이들 기업이 수출증대에 선도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도·지원이 본격 실시된다.

중소기업청은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 우수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유망선진기술기업 180개 업체를 추가로 지정, 모두 712개로 확대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망선진기술기업이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기술개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지정해 정부가 적극 지원·육성하는 제도이다.

중기청은 생산기술연구원, 과학기술원 등 10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이들 기업들을 분담해 자체 보유 첨단기술을 이전토록 할 예정이다.

또 신제품·신기술 개발 등에 대해 업체가 필요기술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연구기

관에서 직접 3년간(연간 30-50일) 체계적인 기술지도를 실시토록 하고 중기청 예산 11억6천만원을 투입, 지도를 받는 업체에게 소요비용의 80%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특히 유망선진기술기업이 수출증대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출중소기업의 가장 취약부문인 설계, 디자인, 시제품제작 지원을 위한 전문기술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정개발, 자동화지도 등 생산현장의 애로기술지도도 병행하기로 했다.

현재 유망선진기술기업은 직접적인 기술지원 외에 공공기관의 우대금리지원(31개 금융기관),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지원시 우대(중진공), 산업기능요원 및 외국인연수생 우선 배정, 단체수의계약 물량배정시 우대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中企 輸出用 新상품 개발 지원

중소기업의 수출용 신상품 개발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중소기업청은 오는 6월부터 수출용 신상품

을 개발하려는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무료로 설계도 작성, 설계도 검증, 디자인 개발, 모형(견본)제작, 금형주조 등의 지원을 해 줄 계획

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은 신청업체로부터 개발샘플을 제공 받은 후 설계디자인이나 캐드캠(CAD/CAM) 전문가, 시작품 신속제작기를 동원,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이 가운데 특히 모형제작 지원은 시작품 신속제작기(Rapid Prototyping)를 활용해 단기간내에 실물과 똑같은 견본품을 중소기업가 받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품화 가능성 여부 등을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도와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가 견본품을 보고 본격적인 상품화 개발에 나서기로 결정

하면 신속히 제품양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금형제작 설계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최근 중소 수출업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 △전문가 지도 경비의 80% △견본품제작 및 개발에 사용되는 설비사용료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업체는 시작품 제작에 소요되는 재료비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중기청은 우선 2억원의 예산을 투입, 올해 100개의 수출기업(업체당 약 260만원)을 선정해 이같은 내용의 신상품개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소기업에 시험·분석수수료 면제

국립기술품질원과 11개 지방중소기업청이 보유한 시험·분석설비들이 소기업들에게 완전 개방된다.

중소기업청은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기술개발 및 품질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산하 기술품질원과 11개 지방중기청이 보유한 8,708점의 첨단·고기능 설비들을 무료로 완전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50인 이하 소기업에 대해서는 자체 기술개발이나 품질개선을 위해 제품의 시험분석

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설비 사용료도 받지 않기로 했다. 또 소기업에서 원·부자재의 구입 또는 품질성능 확인, 납품 등을 위한 대외증명용으로 시험·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도 현행 수수료의 50%만 받기로 했다.

중기청은 이번 조치로 시험설비구입 대체효과 200억원, 소기업에 대한 시험·분석수수료 감면효과 10억원, 설비 무료사용 1억원 등 모두 211억원의 시험·연구·분석관련 비용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